

#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 구성원리(3)

## A Study on the Structural Principle of Madang Based on Korea Traditional Dwelling Space

최동호 / 예진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Ho

- 1. 이야기에 들어 가면서
  - 2. 마당의 개념
    - 2-1. 마당의 정의
    - 2-2. 채와 마당의 분화
    - 2-3. 마당의 분류
  - 3. 전통주거 마당의 구성원리
    - 3-1. 마당구성 특성원리
    - 3-2. 마당구성 원리분석
    - 3-3. 채와 마당의 구성원리
  - 4. 전통주거 마당의 형태원리
    - 4-1. 마당의 유형분석
    - 4-2. 마당의 형태원리
    - 4-3. 마당의 규모
- 맺음말

### 4. 傳統住居 마당의 形態原理

#### 4-1. 마당의 類型分析

채의 분화에서 마당이 분화되고 다시 그채는 間的 분화가 되는 傳統住居空間은 民家의 경우에는 서너間的 조합으로 채의 해결이 가능하지만 배치구성을 결정짓는 要素로서 “채(棟)의 分化”가 대단히 중요하며, 班家의 경우에는 마당과 더불어 매우 복잡한 연결 構造를 갖게 된다. 마당은 그 類型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마당을 위한 마당이 아니라) 반드시 채와 동반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채 속에 안마당이 자리하는 것처럼 사랑마당 또한 사랑채 분화에 의한 類型이 된다. 마당의 구성원리 가운데에서 여섯마당으로 분류한 것 중의 주요 3채인 안채, 사랑채 행랑채와 고방채, 별당채, 사당 등의 여섯채에 의한 여섯마당이 어떻게 분화되어 연결 結合되어 形成되는지 평면형에 의한 類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안채 平面형에 의한 마당들의 類型

민가의 주택 類型 분류에서 보면 안채의 기본틀이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이루어지는 일자형과 꺾임형으로 나누는 2가지의 型으로 볼 수 있는데, “民家型과 京畿型”<sup>21)</sup>으로 대별될 수가 있다. 원래 민가의 형태적 특성으로는 홑집계열과 겹집계열로 구분하기 때문에 평면형태를 한줄로 되는 것(도리방향)과 두줄로 되는 것을 분리하여 마당들의 類型을 나누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마당은 보방향으로 형성되는 점을 감안할때 “민가형과 경기형”으로 나눈 것으로서도 마당의 類型은 구조적인 원리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그림 4-1〉 평면類型에 의한 안마당의 基本形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
	안마당		

	대청	건넌방
안방	안마당	
부엌		

21) 정인국, “韓國의 民家(1)”, 꾸림44호, 374쪽.

보여진다. 홑집의 類型을 보면 일자집, ㄱ자형홑집, ㄷ자형홑집, 트인 구자집, ㄹ자집이 있고, 겹집 類型은 도투말이집, 마루중심형 겹집(까치구멍집), 세겹집(두리집), 온돌중심형 겹집 등<sup>22)</sup>으로 나눌 수가 있다. 겹집에서 도투말이집은 부엌+방+방의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형과 마당의 구성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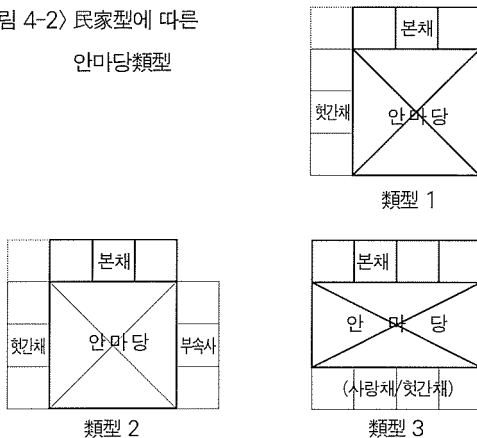
민가형은 一자형, 一列형, 一자형식 등으로 불리워지며 마당은 농사기능이 위주가 되는 안마당이 구성되며 분화에 의해서 一자형, 二자형, ㄷ자형, ㄹ자형의 체에 따른 안마당이 ㄹ자형을 이루게 된다. 민가의 안채는 원래 單室주거로서 불을 이용하는 취사공간과 휴식을 위한 침실공간으로 되었으며 그 기능이 구분되어 부엌과 방으로 형성되었다.<sup>23)</sup> 경기형의 마당은 체가 ㄱ자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외부공간은 자연스럽게 안마당이 이루어 지고 ㄱ자형, 꺾임형, ㄱ자형식 등으로 말한다.

### 1) 民家型的 마당類型

남부지방의 민가에서 많이 볼수 있으며 3량구조에 前面이 3間 내지 4間 規模가 일반적이다. 모든 방이 南向으로 開口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하며 위생상 효율 높은 공간<sup>24)</sup>을 만들수 있는 농촌민가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다. 부속건물이 본체의 좌측 또는 우측이나 앞쪽으로 오게 될 때 물론 체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며 아울러 마당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類型1은 기본형인 일자형에서 헛간채가 분화된 경우로써 ㄱ자형의 평면에 의한 안마당이 구성되며, 尙은 물론 안방의 조망 채광에도 京畿型보다 利點이 있다고 볼 수

<그림 4-2> 民家型에 따른 안마당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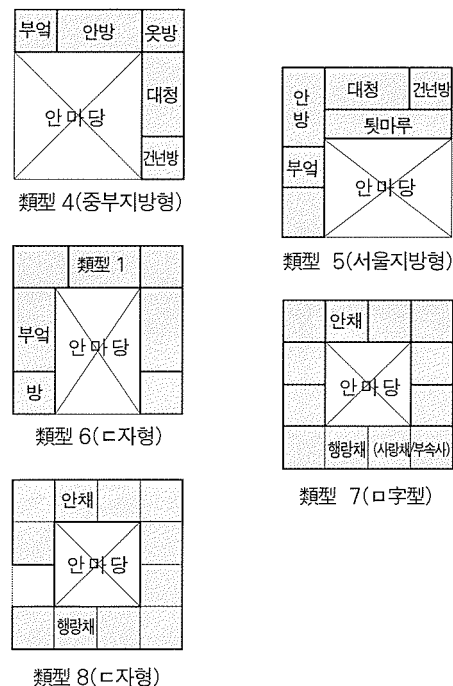
22) 김일진, "南部地方의 傳統民家", 《建築과 環境》 8708, 25쪽.  
23) 朴彦坤, 앞책, 211쪽.  
24) 朴彦坤, 앞책, 212쪽.

있으며, 類型2에서는 체의 형식이 본체(안채+사랑채 또는 안채만 있는 경우의 2가지)와 헛간채 및 부속사로 이루어지며 ㄷ자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가운데에 마당이 생긴다. 사랑채 또는 헛간채가 본체의 전면으로 분화되어 가운데에 마당이 형성되는 類型3과 같은 경우도 있다.

### 2) 京畿型的 마당類型

경기형의 평면형은 궁전건축<sup>25)</sup>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꺾임형으로서 처음에 정면 3間 또는 4間으로 되며 한쪽의 퇴간이 앞으로 연결되어 배치가 일렬에서 직각으로 연결되는 형식으로 그 類型은 2가지<sup>26)</sup>로 나눌 수가 있다. 그 類型을 살펴보면 類型4인 중부지방형은 전면이 남향으로 되어 일조와 일사에는 유리하지만 방의 독립성에는 불리하고, 서울지방형인 類型5는 그 반대로써 안방은 일조는 좋지 않으나 독립성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부엌의 위치에 따라서 ㄱ자로 꺾이게 되면 경기형이 되는 요인이 되지만 마당의 형태는 ㄹ자형으로 변함이 없다. 다음 類型7인 경우는 ㄷ자형태로서, ㄱ자형이나 一자형집의 앞에 부엌이나 방이 접속되어 나타나며 一자형이나 ㄱ자집의 발전형태이다. 이런 형이라도 마당의 형태는 ㄹ자를 유지한다. 類型8과 7인 예는 트인 ㄹ자이거나 ㄹ자형으로서, ㄱ자형 안채와 사랑채가 맞물리거나(또는 ㄷ자형에 일자형 사랑채나 부속사가 접속됨) ㄷ자형 정침에 一자형 행랑채가 형성된다. 類型7은 영남 북부지방에 몰려있는 전형적

<그림 4-3> 京畿型에 따른 안마당類型



25) 鄭寅國, 앞책, 374쪽.  
26) 朴彦坤, 앞책, 212쪽.  
27) 文世榮, "ㄹ字型 傳統住居의 平面構成에 관한 研究", 慶熙大 碩論, 1987, 22쪽.

인 크기의 평면형으로서 채가 마당을 에워싸는 예가 되는 것이며 마당의 크기는 2×2 間 이상되어야 채광 조망 배수 작업 등의 실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sup>27)</sup>. 그러나 향단과 같은 안마당의 크기는 2×2 間(5.09×4.42)이지만 사랑대청으로 열려진 개방공간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좁게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자형 주거에서 안채의 평면구성은 채의 분화에도 실의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반해 사랑채와 행랑채는 변화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므로<sup>28)</sup> 만약 사랑채가 분화되면 사랑마당이 생기고, 행랑채가 분화되면 행랑마당이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분화의 과정은 다시 영역을 구축하며 또 다른 채의 마당을 발생케 한다.

#### 나. 사랑채의 平面형에 의한 마당類型

사랑채가 채(棟)로 분화되는 것은 中農形式이상(자영농)이며<sup>29)</sup> 중농이하 계층에서는 채로 나뉘지는 것이 아니라 間으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랑마당의 경우에도 안채와 마찬가지로 마당의 類型이 먼저 결정된 후에 채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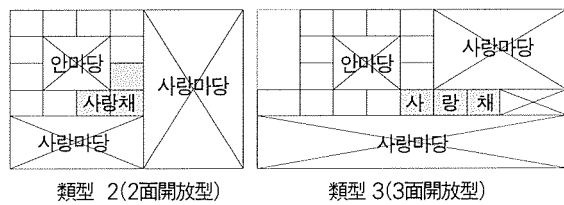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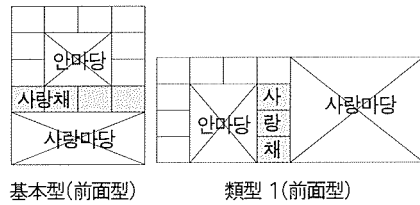
되는 “마당을 위한 마당”이 아니라, 채가 먼저 구성된 후 그다음 마당이 생기는 “채에 의한 마당의 形成”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전통 민가에서 분화의 시작 자체가 한국 전통 건축만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문화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건축문화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배경과, 사상적인(유교사상, 음양오행사상 등) 밑바탕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사랑채는 전통적인 분화방법으로서 유교의 내외법에 따라 남녀의 각공간이 분리되어 안채와 사랑채로서 나누어지게 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안채와 연결된 부속형태로 나타

나는 접속형으로서 단순형, 복합형, 누마루형으로 분류되고, 후대로 오면서 조선중기부터는 별동형<sup>30)</sup>으로 나타난다.

#### 1) 單純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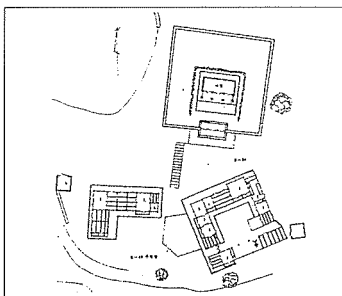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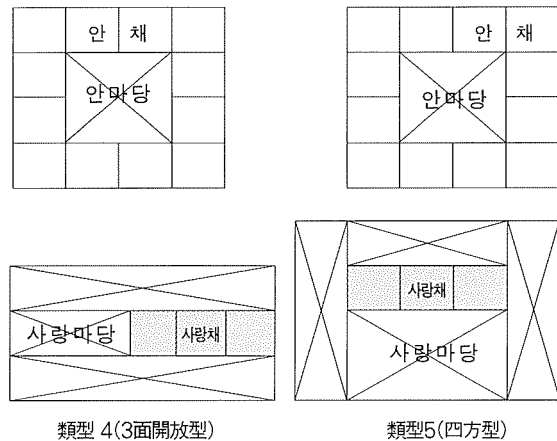
단순형은 사랑채가 안채와 혼합된 하나의 몸체를 구성하며 (안채접속형) 분화되어 별동의 건물로 되기전까지는 그 機能과 마당의 空間 영역상으로는 확실한 구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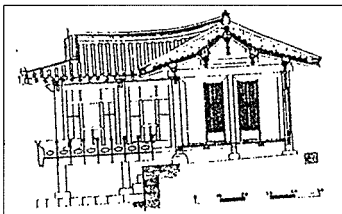
#### 2) 別棟型

사랑채의 규모가 커지면 분화로 과정을 거쳐서 별동의 사랑채가 구성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때 사랑마당의 공간은 확실한 구분을 가져오게 된다. 사랑채의 類型은 單純型과 別棟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순형은 안채의 4가지 類型에 의한 사랑마당의 분류이다. 사랑채는 안채에 의한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의해서 마당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안채의 類型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이 있다. 단순형은 기본형을 前面形으로 하고 類型의 변화를 3가지 가지게 된다. 類型 1은 사랑채의 前面에 마당이 구성되는 것으로서 윤선도 고택과 같은 예이며, 類型2는 2面 開放形으로서 손동민가옥의 경우, 3面 開放形의 類型3은 운조루, 충효당과 같은 대부분의 가옥이 여기에 속한다. 별동형에서는 사랑채의 간의 분화도 이루

〈그림 4-4〉 사랑마당의 類型



〈도표 4-1〉 무침당 配置圖



〈도표 4-2〉 무침당 斷面圖



〈사진 4-1〉 누마루 全景

28) 文世榮, 안채, 26  
29) 김홍식, “韓國의 民家”, 구입44호, 1984, 59쪽.  
30) 崔臺, “朝鮮中期以後 南部地方 中上流住居에 관한 研究”, 서울대 博論, 1989, 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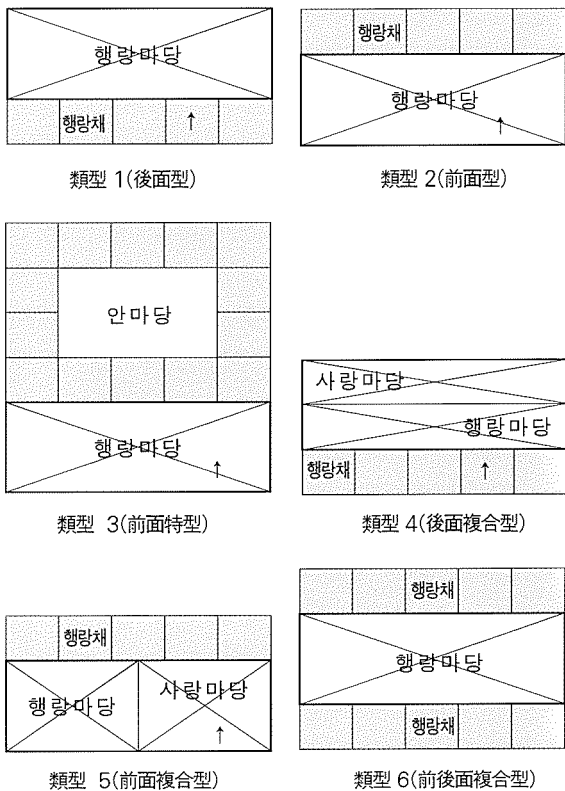
어져서 실이 세분되는(寢房, 冊房, 사랑방) 양상을 띠게된다.

사랑마당은 3면형과 사방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類型4는 의성김씨종가택의 경우이며, 사방형의 類型5는 완전한 별동으로 자리를 잡게되는데 김동수 가옥이 이런 사례에 속하며 선교장의 활래정은 사랑마당앞과 행랑마당이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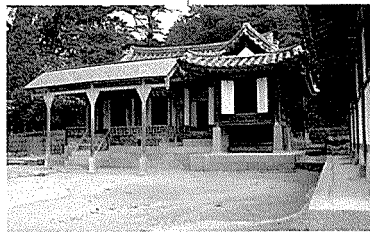
〈表 4-1〉 사랑마당 類型

구분 비유 형태	單純形			別樣形		비고
	類型 1 前面型	類型 2 2面 開放型	類型 3 3面 開放型	類型 4 4面 開放型	類型 5 四方形	
대청			총효당		임청각	의성김씨대종가
대청+누마루			양진당		독락당	사랑채는 일부
누마루	향단 운선도기옥	예안이씨종가 손동만기옥	관가정 정재영가옥 운조루 강기용가옥 연경당	의성김씨대종가	박황가옥 김동수가옥 임청각 허엽정 동춘당	행랑채와 연결 되었으나 별당 개념으로 볼수 있으며 3면 개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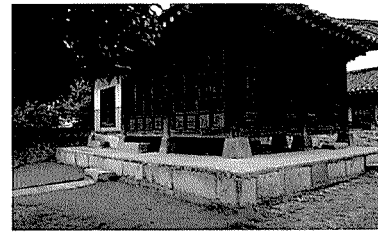
〈그림 4-5〉 행랑마당의 類型



〈사진 4-2〉 총효당 사랑마당과 행랑마당



〈사진 4-3〉 선교장의 사랑마당과 행랑마당



〈사진 4-4〉 제월당 별당마당

다. 행랑채 平面型에 의한 마당類型

안채와 사랑채의 補助的인 역할을 갖고 있으며 수장기능을 담당하며 행랑채의 행랑마당은 채의 구획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담의 역할이 마당을 구성하는 形式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행랑마당의 類型은 6가지로 나누어지는데 類型1은 행랑채가 전면에 노출되어 집의 경계영역을 짓게되며 바깥마당에서 보면 집의 울타리 역할은 물론, 입면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부분의 전통가옥이 이 형식에 속하게 된다. 類型2는 양동마을의 향단과 같이 대문을 진입하게 되면 먼저 마당이 위치하고 그뒤에 행랑채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서 전면의 행랑채 대신 담이 입면을 구성하게 된다. 類型3은 행랑마당만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관가정이 이 예에 속한다. 행랑마당과 사랑마당이 겹치는 공간의 類型으로써 가로로 함께하는 것은 類型4의 後面複合型이고, 세로로 같은 마당이 되어 있는 것은 類型5(前面複合型)로 될 수 있다. 강릉의 선교장의 행랑마당이 類型4의 경우이고, 類型5는 양진당이나 총효당의 행랑마당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類型6은 임청각의 예로서 두행랑채의 병렬로 된 그 사이에 행랑마당을 이루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행랑마당은 여섯가지의 행랑마당 類型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고방채, 별당채, 사당채의 평면형에 의한 마당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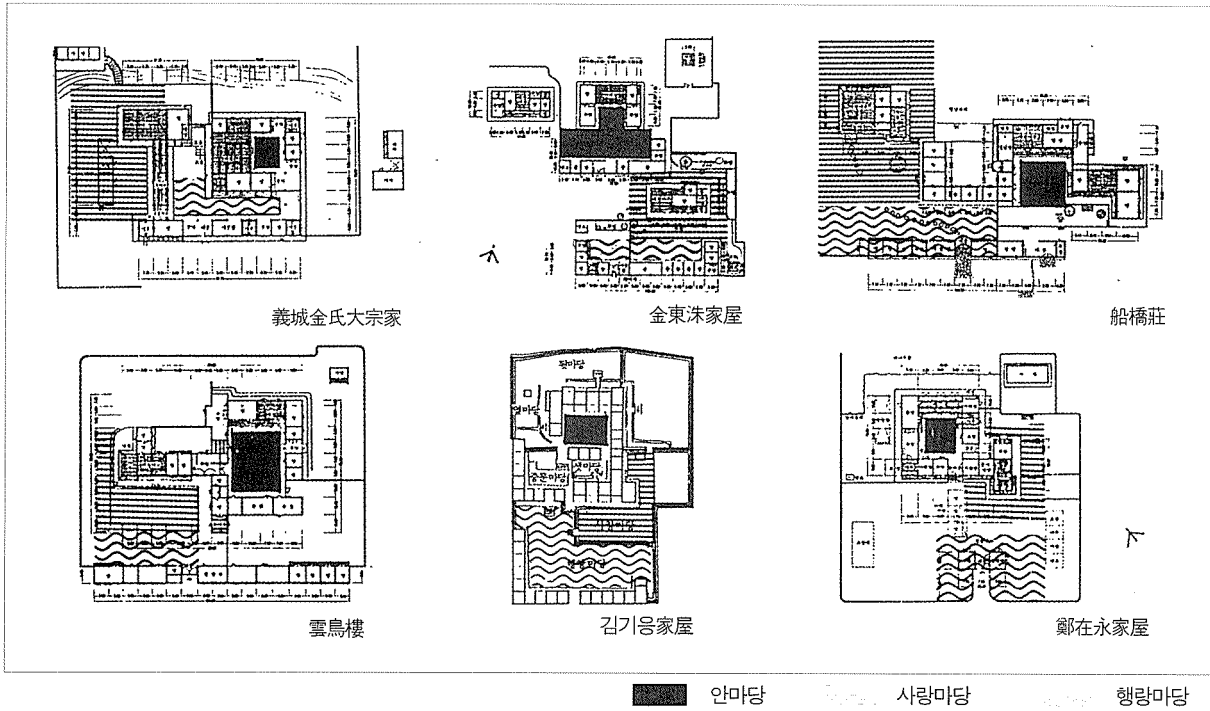
고방채의 원형이 남아있는 예는 많지 않고 정재영가옥의 배치도에 의하면 별도의 고방채를 두고 그 앞에 마당을 위치시켰다. 이 가옥의 경우에는 고방마당의 형태가 확실

〈表 4-2〉 행랑마당의 類型

類 型 區分	類型 1	類型 2	類型 3	類型 4	類型 5	類型 6
	後面型	前面型	前面特型	後面複合型	前面複合型	前後面型
家屋	의성김씨 대종가 총효당, 양진당 복춘대, 박황가옥 정재영가옥 김동수가옥 운선도기옥, 운조루 강기용가옥, 명씨행단 재월당, 임경당 연경당	손동만가옥, 향단 무침당, 정재영가옥 윤중고택, 동춘당 독락당	관가정	선교장	총효당 양진당	臨濟閣



〈도면 4-3〉 마당의 形態에 나타난 範圍圖



로 살펴보면 첫째, 안마당은 대체적으로 卍자형을 형성할 때 正方形을 갖는 평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사랑마당의 경우는 물론 사랑채를 기준으로하여 볼 때 전면에 마당이 구성 되어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사방으로 마당이 형성되는 사례까지를 포함하여 보면 여러 형태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마당의 類型이 기본형에서 類型5(사방형)의 여러모습이 됨을 알 수 있는데, 기본형과 類型1(전면형)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함께 장방형이 됨을 알 수 있고 類型2(2면 개방형)는 ㄴ자형, 類型3(3면 개방형)은 ㄴ자형에 장방형이 합쳐진 경우이고, 類型4(3면 개방형)는 ㄷ자형이, 類型5(四方形)는 卍자의 형으로 됨을 알 수 있다. 사랑마당은 대체적으로 卍字形인 안마당과는 전혀 다르며, 長方形이라고 단정짓기가 곤란하고 채의 類型에 따른 마당의 형태가 장방형에서, ㄴ자형, 卍자형 등의 複雜한 모습을 갖고 있다. 셋째, 행랑마당은 前面 또는 後面이던 관계없이 장방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사당마당의 類型은 안마당의 경우처럼 장방형의 비례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섯째, 그외의 마당의 類型

인 곽방마당과 별당마당 등은 어떠한 형을 결정짓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그 채(棟)의 형에 따라서 외부공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며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본다.

마당의 형태는 채의 類型에 따라서 외부공간이 여러 比例를(그림 4-6 참조) 보이며 단순하게 형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안마당과 사당마당은 대체적으로 卍자형을 갖고 있다. 특히 안마당의 類型은 그 비례가 갖는 가로 세로의 비율이 의성김씨대종가는 1:1.18, 충효당이 1:1.32이며 향단은 1:1.15가 되었다. 卍자형을 갖는 마당은 물론 채의 구성이 안대청이 몇칸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장방형에 가까운 예가 많으며, 卍字形이지만 정병호家屋은 1:2.49의 가로 세로의 비를 갖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사례가옥을 종합하여 보면 마당이 갖는 비례는 보통 1:1.5의 범위내에 속해 있으며 추사고택과 같이 1:1의 크기의 장방형의 비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사진4-8〉 운조루의 뒷마당



〈사진4-9〉 김기응가옥의 안마당



〈사진4-10〉 정재영가옥의 안마당